

이주의 본당 소식

*본당의 새로운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미사 30분 전 공동체 기도(묵주 기도, 성체 조배)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미사 일정
12월 24일(화) 오후 8시 : 성탄 전야 미사 (미사 후 다과)
12월 25일(수) 오후 5시 : 성탄 대축일 미사
(미사 후 친교, 성탄 파티 - 구역별, 단체별 장기 자랑)
1월 1일(수) 오후 5시 : 신년 미사 (미사 후 친교 - 떡국)
- 2019 교무금 완납
<교무금 완납자 명단>
김광대, 김성철, 김영두, 김영복, 김연자, 박영희, 송헌배, 신용철, 안우풍, 오세환, 윤모니카, 임익철, 장석영, 황선동
- 자선 송년의 밤
일시 : 12월 28일(토) 오후 7시
티켓 : \$40
* 송년의 밤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저희 성당에서 준비한 자선 행사입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사목 협의회 모임
1월 2일(목) 오후 7시 30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 찬양, 치유 미사 <매월 셋째 주일>
남부 뉴저지, 필라델피아, 델라웨어 지역 연합 찬양, 치유 미사
일시 및 장소 : 1월 19일(일) 오후 4시, 체리힐 성당
*찬양, 미사, 안수 및 치유 예식, 친교
- 성가책 판매
소 : \$25
- 성모님 꽃 봉헌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관우 바오로 부제, 이길자 데레사, 배향숙 루시아, 한 베드로, 김윤선 호노리아>

모두함께! 구역 소식

*구역 여러분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 구역 모임
마틸다 구역 : 1월 7일(화) 오후 7시에 박영희 마틸다 자매님 댁에서 있습니다.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

*환영, 환송, 축하 등 모든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입니다!

알립니다!

- * 이번달 상품권 판매는 사목회 구역입니다.
- * 이번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글로리아 구역입니다.
다음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마틸다 구역입니다.

St. Yi Yun Il John Korean Catholic Mission 체리힐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김도윤 프란치스코
사목회장: 윤모니카



2001 Springdale Rd. Cherry Hill, NJ 08003 (ST. MARY내 위치)

856-912-1355

chkcc.org

미사안내

주일 : 오후 5시
평일(목요일) : 낮 12시

성사안내

고백 성사 : 미사 30분 전
혼인 성사 : 3개월 전 신청
병사 성사 : 위급할 시 언제나
유아 세례 : 1개월 전 신청

*단체모임 안내

여성 레지오(평화의 모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울뜨레아 :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7시
열린 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소성당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사목회 : 추후 공지

오늘의 미사 전례

*미사시작 20분 전에 기도와 성사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당성가	93번 임하소서 임마누엘
제1독서	이사야서 7, 10-14
화답송	◎ 주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이다.
제2독서	로마서 1, 1-7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
복음	† 마태오 1, 18-24
봉헌성가	91번 구세주 빨리오사
성체성가	96번 하느님 약속하신 분
퇴장성가	88번 임하소서 구세주여

오늘의 묵상

오늘 제1독서에서는 하느님의 계획을 강조합니다. 이사야가 아하즈 임금에게 표징을 청하라고 제안합니다. 제안도 주님한테서 오는 것이며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표징을 청하지 않으며 하느님께서 개입하시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임금의 폐쇄적인 태도 앞에서 주님께서 특별한 표징을 통하여 당신 사랑의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 은총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복음에서는 이 약속된 표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보여 줍니다.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의 일을 두고 무척 고민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아기 탄생을 앞두고 요셉이 감수해야 하는 엄청난 시련은 마리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주님께서 그에게 혼인과 사랑과 행복의 길을 열어 주셨음을 보여 주고자 개입합니다.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이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고민의 실타래가 풀리면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예언자를 통한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동정 잉태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태어난 그 아들, 곧 사람이 되신 말씀은 인간과 친교를 맺고 당신 현존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의미이고,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의 계획입니다.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우리들의 기도

평화의 기도

-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 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이해 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 받기 보다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는 베풀어야 받을 수 있고,
용서해야 용서 받을 수 있으며,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주의 미사전례 봉사자

주 일	대림 제4주일 12월 22일	12월 24일 전야 미사	12월 25일 성탄 미사
제1독서	박영희 마틸다	박민수 벨라도	황선동 스테파노
제2독서	박민수 벨라도	박영희 마틸다	김희동 프란치스코
봉헌자	방효선, 방영애	문혜숙, 김명숙	오세환, 김광대

우리들의 주일정성

< 12월 15일(일) >

봉헌금	\$727.00	
교무금	\$300.00	김영두(9-12), 박영희(11,12)
미사예물	\$120.00	
매일 미사책 판매금	\$95.00	
성가책 판매금	\$25.00	
Total	\$1,267.00	